

조희연 “9년간 직업계고 반도체 인력 4050명 키울 것”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10년간 전문가 12.7만명 더 필요
학점연계제 활용 직업계고 특성화

3년간 연 2곳 거점학교 지정하고
학과 개편, 학교 밖 수업도 진행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향후 2031년까지 총 4050명의 반도체 고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분야에 약 12.7만명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강사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고교 단계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 당국의 반도체 인재양성 주면에 호응했다. 특히 학점연계제 등을 활용한 직업계고의 특성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현장의 인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05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10년 간 반도체 전문인력 추가 수요는 약 12만7000여명에 달한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전망에 따라 현재 약 17만7000명인 산업인력이 10년 후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고교 단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선 연차별(2023년~2025년)로 2개 학교씩 거점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

하는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서울 직업계고 학점연계제를 통해 반도체 관련 다양한 과목의 이수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

기본적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과 내에 세부전공 코스를 운영한다. NCS 체계에 의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분야는 반도체 개발 분야, 제조 분야, 장비 분야, 재료 분야 등이 있다.

신상열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학사 이상 인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고교 단계에서는 설계 보조까지도 가능하다”며 “NCS 레벨 3,4에 초점을 두고 학습모듈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수업은 학교 밖 수업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대학, 산업체 등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에서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

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SK하이닉스 같은 산업체들과 직접 이야기가 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산업체들이 후속 논의에 대한 관심은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강사진 수요다. 반도체 분야는 인제는 물론 교육자의 공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 역시 “(강사진 구축이) 가장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사자를 전문교과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스매칭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도 설립된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총괄함과 동시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한다. 교육원에는 반도체 분야 전·현직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신기술 교육 지원에도 힘을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초·중등 예산 덜어 대학지원, 강력한 유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세입예산안 인수법안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 만들어야”

초·중등 예산을 덜어 대학·평생교육으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등 25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인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에서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와 교육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

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의 예산 인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시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

육재정에 포함되는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모습이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학교 교육과정 연계 ‘자전거 타기’ 추진

서울시교육청, 교육 확대방안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속 체육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3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를 조성해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며 자전거 교육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타기 교육에 2025년까지 총 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교육용 자전거 확보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학교에서 공인하겠다는 뜻의 ‘자·타·공·인’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지수개발·보급을 통해 학교급별 자전거 타기 성취수준(지수)을 제시하는 등 ‘생활 속 자전거 타기’ 실천 문화를 조성할 계획

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5년까지 강사의 지도 아래 자전거와 안전 장비가 모두 제공되는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 전체 초·중 4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되며, 수강 학생의 80% 이상이 인증제를 통과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

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자전거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며, 고등학교는 자전거 동아리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실내사이클 활동 지원 ▲자전거 역량 지수 개발 및 인증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조 교육감은 “생활 속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보충이 추가되는 등 생태 도시로 변화하는 소망이 있다”며 “앞으로 자전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교육 응원·격려 메시지 보내주세요”

서울시교육청, 메시지 공모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울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주제로 한 ‘서울교육메시지 선정 공모전’을 실시한다.

‘서울교육메시지’는 교육청 외벽에 위치한 대형 글판이다. 서울교육의 지향점을 알리고, 보는 이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설치했다.

2023년부터는 공모전을 통해 메시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누구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자유롭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주제로 타인에게 격려와 응원을 줄 수 있는 한글 20글자 이내 문구로 작성해 1인당 2개작까지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총 3개작을 선정하며, 당선작(1작)은 30만원, 가작(2작)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하은 기자

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경북대가 2022년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국립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흥원화 경북대 총장(오른쪽)과 안원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뉴스시스

경북대, 국가고객만족도 국립대 부문 1위

경북대학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2022년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국립대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립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북대는 지난해보다 6점 상승한 7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국립대 최초로 재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부를

신설했다. 융합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분야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재학생들이 전과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 기존 학사제도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학사제도 개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연구는 물론 문화·휴식공간까지 갖춘 최첨단 도서관, 입학부터 졸업까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생종합지원센터 등 학생 중심 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홈페이지서 입학 접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2월 1일까지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과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을 모집하며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접수는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된 온라인 사회복지대학원이다.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실천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5대 교육분야에 대해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